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비트컴퓨터(032850)

소프트웨어

요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이병찬 선임전문위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21.04.29에 발간된 동 기업의 기술분석보고서에 대한 연계보고서입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 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컴퓨터(032850)

의료정보 사업,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선두주자

기업정보(2022/02/07 기준)

대표자	조현정, 전진옥
설립일자	1983년 08월 15일
상장일자	1997년 07월 04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주요제품	의료정보 시스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IT 교육사업

시세정보(2022/02/07 기준)

현재가	9,290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1,544억 원
발행주식수	16,623,293주
52주 최고가	13,900원
52주 최저가	8,000원
외국인지분율	1.24%
주요주주	
조현정	24.28%
조현정재단	0.82%
전진옥	0.01%
한국증권금융	5.71%
자사주	1.00%

■ 의료정보 시스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다각화

비트컴퓨터(이하 동사)는 1983년 8월 설립되어 1997년 7월 코스닥에 상장한 의료정보 솔루션 기업이다. 동사는 클라우드 기반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의료정보 시스템 사업과 비대면 원격진료 관련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 중이다. 동사는 의료정보 사업 분야 병원 부문 시장 점유율 1위로 인지도를 넓히고 있는 가운데, IT 교육사업과 임대사업을 통해서도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

■ 2020년 매출은 전년에 이어 370억 원대 규모 유지

동사의 2020년 매출액은 372.8억 원으로 전년에 이어 370억 원대를 유지하였다. 동사는 최근 3년 연속 300억 원 대의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 중이며,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 4.2% 증가한 262.7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2020년 매출액의 70.5%에 달하는 수치이다.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주력사업인 의료정보사업(의료정보 시스템, 디지털 헬스케어)이 72.9%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IT 교육사업과 임대사업은 각각 22.6%,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원격진료 등 사회적 요인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전망은 긍정적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함께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원격진료 서비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까지 다다른 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은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12월 다수의 미디어 자료에 따르면, 동사는 전국 5,000여 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위한 화상통신 장비를 구축하였는데, 이 사업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 중 비대면 산업 육성 사업에 해당되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한국보건의료원이 주관하였으며, 동사가 수행한 사업이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327.7	2.7	-21.7	-6.6	-2.3	-0.7	-0.6	-0.4	33.3	-14	2,558	N/A	2.0
2019	373.8	14.1	60.7	16.3	70.9	19.0	15.6	12.0	27.4	427	2,982	10.2	1.5
2020	372.8	-0.3	54.6	14.6	64.7	17.4	12.5	9.7	29.1	389	3,324	28.5	3.3

기업경쟁력

디지털 의료정보 분야의 차별화된 기술력 보유

- 동사의 클라우드 기반 의료정보 시스템은 별도의 하드웨어 설치작업 없이 고성능 의료정보 서비스 제공
- 각 병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최신 기능들의 탑재와 다양한 옵션들을 통해 업무에 최적화된 환경 지원

IT 교육사업, 임대사업을 통한 사업 다각화

- 정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자체 설립한 비트교육센터를 통해 수익 실현(동사 매출의 약 22.7% 차지)
-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 실현(동사 매출의 약 4.5% 차지)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병원 업무에 최적화된 제품

- 각 병원 요구사항을 반영한 다양한 옵션들을 통해 최적화된 업무 시스템 제공
-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연동되어 고도화된 의료 업무 환경 구축

종류	제품 설명
클레머 (CLEM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 기반 통합 의료정보시스템 • 처방 전달 시스템(OCS)과 전자적 자원관리 시스템(ERP)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시스템
bitnixH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형병원용 통합 의료정보시스템 • EMR, OCS, PACS 등 진료 정보와 관련된 기능 기본 탑재 • 경영지원 시스템과 연계 가능
BITCare Pl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의료인이 다른 장소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원격협진 시스템

시장경쟁력

원격진료 필요성 등으로 시장 성장 전망

- 글로벌 조사기관 TechNavio 보고서(2019)에 따르면, 세계 의료정보 시장은 2019년 228.7억 달러에서 2024년 335.4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 세계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국내시장 비중을 적용한 결과, 국내 의료정보 시장은 2019년 4,331억 원에서 연평균 9.1%로 성장하여 2024년에는 6,704억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국내 의료정보 시장전망 추이]
(출처: TechNavio 보고서(2019), NICE디앤비 재구성)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동사는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주관하는 탈(脫)플라스틱 실천운동인 '고고챌린지'에 동참하고 있음.

S

(사회책임경영)

- 동사는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SW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함.
- 동사는 기업의 이익과 성장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기술을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 역시 수행하고 있음.

G

(기업지배구조)

- 동사 이사회는 총 5인으로 사외이사 2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2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감사 지원조직을 별도 구성하고 있음.
- 동사는 주주환원을 위해 결산배당을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보호 정책과 정보보호 정책을 보유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음.

I. 기업현황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선도하는 의료정보 솔루션 기업

동사는 디지털 의료정보 솔루션 기업이다.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춘 제품을 바탕으로 의료정보 시스템 사업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IT 교육사업과 임대사업을 통해서도 매출을 시현하고 있다.

■ 기업 개요

동사는 의료정보 시스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성장성이 높은 U-health 시장을 선점 중인 의료정보 솔루션 기업이다. 동사는 1983년 8월, 국내 대학생 벤처 1호이자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 1호의 타이틀을 가지고 설립되었으며, 코스닥 상장은 1997년 7월에 하였다.

동사는 EMR로 대표되는 의료정보 시스템에 클라우드 기술, 시스템간 연계기술 등 최신 IT 기술들을 적용하여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패키지 제품들을 출시하였으며, 원격의료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도 진출하여 부스형 원격의료 시스템 등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 중이다. 동사는 국내 상급 종합병원뿐 아니라, 중대형급 병원, 소형병원, 요양병원, 의원, 약국 등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으며, 정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자체 설립한 비트교육센터와 동사 사옥을 통한 임대수익으로도 매출을 시현하고 있다.

■ 주요 주주 및 관계 회사

동사 분기보고서(2021.09)에 따르면, 동사의 최대주주는 조현정 대표이사로 총 24.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 뒤로 투자사인 한국증권금융이 5.7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현정재단과 특수관계자인 신현미, 전진욱이 각각 0.82%, 0.23%, 0.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동사의 자사주 비중은 1.00%이다.

동사는 (주)비트인테크와 (주)비타임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다. (주)비트인테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동사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은 1,457백만 원이다. (주)비타임은 사업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역시 동사가 100% 지분을 보유 중이고,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831백만 원이다.

한편, 동사의 관계기업으로는 (주)네트링크시스템과 (주)비트플렉스가 있다. (주)네트링크시스템은 온라인 교육학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지분율은 20%이며, (주)비트플렉스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동사 지분은 29.25%이다.

[표 1] 동사 관계회사 세부정보

관계회사	업종	매출액(백만 원)	동사 지분율(%)	비고
(주)비트인테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457	100	종속기업
(주)비타임	사업건설업	831	100	종속기업
(주)네트링크시스템	온라인 교육업	-	20	관계기업
(주)비트플렉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17,748	29.25	관계기업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 사업 분야

동사는 의료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정보 시스템 사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 중이며, IT 교육사업, 임대사업을 통해서도 수익을 실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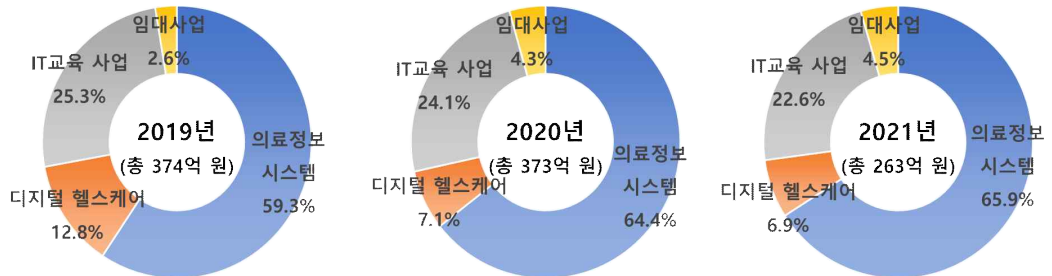
의료정보 시스템 사업은 병원에서 필요한 원무, 진료, 전자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등의 서비스들과 환자 의료기록을 전자문서로 기록하는 EMR 시스템을 제품화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며, 주요 고객은 중대형급 종합병원, 소형병원, 요양병원, 의원, 약국 등이다. 동사는 의료정보 시스템 사업과 관련하여 통합의료정보시스템 ‘클레머(CLMR)’와 ‘bitnixHIS’ 등의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트플러스’를 출시하여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은 컴퓨터나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 의료인을 진단하거나 의료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의 원격의료 시스템 사업을 말한다. 국립경찰병원 등 국공립 기관이나 민간병원, 보건소 등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주요 고객이며, 제품으로는 ‘비트케어 플러스(BITCare Plus)’와 독립 키오스크 형태인 ‘비트케어 스테이션 (BITCare Sation)’ 등이 있다.

IT 교육사업은 동사 교육기관인 비트교육센터를 통해 프로그래밍이나 데이터베이스 등을 교육하고 수강료를 받는 사업이다. 최소 C, C++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컴퓨터, 전산 관련 전공자들이 주요 고객이며, 80여 명에 달하는 석박사 출신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높은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고,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동사 분기보고서(2021.09)에 따르면, 2021년 사업 매출 중 의료정보 시스템 사업이 전체 매출의 65.9%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았다. IT 교육사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임대수입 사업이 각각 22.6%, 6.9%, 4.5%의 비중을 차지하여 그 뒤를 이었고. 의료정보 시스템 사업은 [그림 1]과 같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점유율과 함께 점진적으로 사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1] 동사 사업 분야별 점유율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패키지 의료정보시스템, 클레머(CLEMR)

클레머는 동사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 통합 의료정보시스템으로 별도의 하드웨어 설치작업 없이 월 단위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성능 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이다. 클레머는 병원 규모에 따른 프로세스 차이와 전문 진료 분야로 인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모듈 단위로 분석하여 기본 구성 서비스와 선택 구성 서비스, 부가 서비스 등 선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아울러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의 암호화,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SSL(Secure Socket Layer)을 통한 네트워크 암호화 등 보안을 강화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의료법 개정안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요구사항도 충족한다.

또한, 클레머는 환자 의료기록을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EMR 시스템 이외에도 처방 전달 시스템(OCS), ERP 등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병원 근무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며, 최신 기술 기반 시스템에 따른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효과를 가져다준다. 이외에도, EMR, OCS, ERP에 대해 별도의 서버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클라우드 기반이고,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어 하드웨어 비용의 최소화와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다준다.

[그림 2] 클라우드 기반 클레머(CLEMR) 특징 및 기대효과



*출처: 동사 제공자료, NICE디앤비 재구성

■ 중대형병원 통합 의료정보시스템, bitnixH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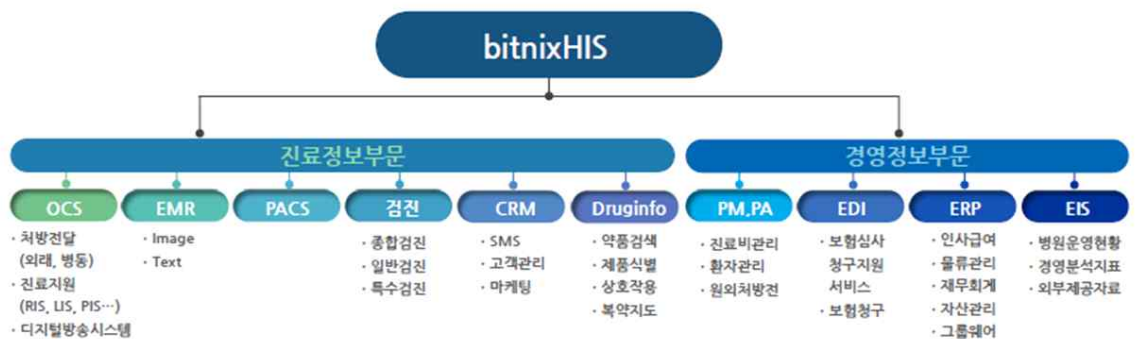
bitnixHIS는 중대형병원용 통합 의료정보시스템이다. bitnixHIS는 [그림 3]과 같이 EMR, OCS, PACS 등 진료 정보와 관련된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 의사들의 검진, CRM, Druginfo에 관한 기능이 있으며, 병원 각 파트의 경영지원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게 되어있다.

시스템 구성은 타 정보망이나 시스템들이 연계할 수 있는 Information Infrastructure 파트와 OCS, EMR 기능이 있는 Direct Care 파트, 진료지원, 원무와 관련된 Supportive 파트 등으로 되어있으며, 유연한 구조와 최신 정보통신 기술로 의사들이 진료를 원활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의약품 처방 최적화 서비스, 보험청구 사전점검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와 연동되어 고도화된 의료 업무환경 구축이 가능하며, 병원 요건 및 사용자 필요에 따라 EMR 레이아웃과 해상도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 병원 서식 생성기를 제공하여 병원 내 필요한 서식들을 생성하고 있는 기능 등을 제공한다.

[그림 3] bitnixHIS 구성 및 기능

bitnixHIS 구성 및 주요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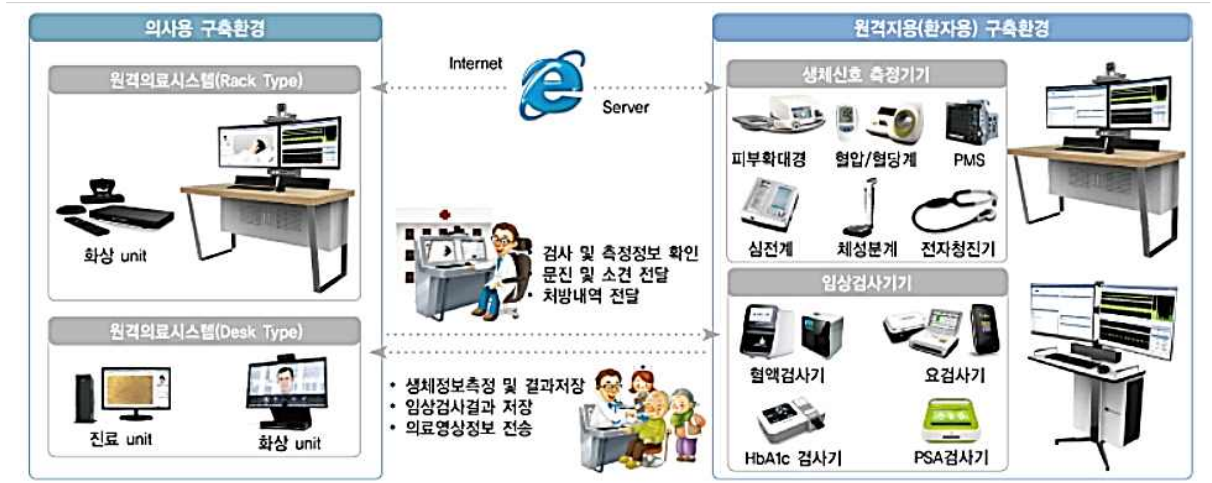
*출처: 동사 제공자료, NICE디앤비 재구성

■ 디지털 헬스케어를 위한 원격의료 시스템, BITCare Plus

BITCare Plus는 현지 의료인이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다른 장소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협진 시스템이다. 현지 의료인은 BITCare Plus를 통해 다른 장소의 의료인이 수집한 환자의 생체정보 자료(혈압, 혈당, 맥박, 체지방, 심전도, X-ray 자료 등)를 전달받아 진료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산간, 도서, 격오지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등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환자를 원격지 의료인이 돌보는데 유용하다.

BITCare Plus는 환자용 시스템(고정형/이동형) 및 의사용 시스템(랙형/데스크형)이 정적인 구성이 아니고 동적인 구성이라 고객의 환경에 적합하게 하드웨어를 제시할 수 있고, 생체신호 연동 및 임상검사장치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기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어 기존 사용 중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도 연계가 가능하다. 아울러, 원격 화상통화를 통해 환자를 실시간급으로 직접 진단하거나 상담 진행이 가능하여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이나 원양선박 등의 수요가 높은 편이다.

[그림 4] BITCare Plus 서비스 구성도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 정보산업계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비트교육센터

동사는 자체 교육기관인 비트교육센터를 통해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비트교육센터는 우수한 인재의 양성이 기업으로써 할 수 있는 커다란 사회적 기여라는 동사의 신념하에 설립된 정보산업 전문 교육기관이다. 비트교육센터는 정보산업계의 상위 1%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정원의 절반 이상이 미달 되더라도 절대평가 방식을 통해 기본 지식을 갖춘 지원자만 모집한다.

지원자는 주로 컴퓨터 공학이나 전산 관련학과를 전공한 이공계 출신의 직장인이나 학생들이며, 최소 C, C++ 프로그래밍을 다룰 줄 알아야 입학이 가능하다. 동사의 교육센터는 국내 유명대학의 석박사 출신이 주축인 80명의 강사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장점이며, 정규교육 외에도 매주 별도 전문서적을 마스터해야 하는 그룹스터디 문화를 가지고 있다.

교육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교육과정은 3개월간의 이론수업과 3개월간의 프로젝트 수행으로 되어있고, 교육 과목은 기초 프로그래밍(C, JAVA), 웹 프로그래밍(Node.js 기본, HTML5 등), 윈도우 프로그래밍(Window System Programming, Visual C++ MFC) 등이 있다.

[그림 5] 비트교육센터 홈페이지

*출처: www.bitacademy.com

■ ICT 기술 접목으로 한 단계 고도화된 의료정보 산업과 시장

의료정보 산업은 의료와 ICT의 접목으로 특정 지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정보 산업은 IC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의료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병원 내 슬립, 차트, 필름, 종이를 없애는 4Less(Slipless, Chartless, Filmless, Paperless) 기반 디지털 병원은 불과 수년 전 구축 단계에서 현재 전용 소프트웨어, 시스템 연계 등 유무선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정보시스템 구현 단계까지 발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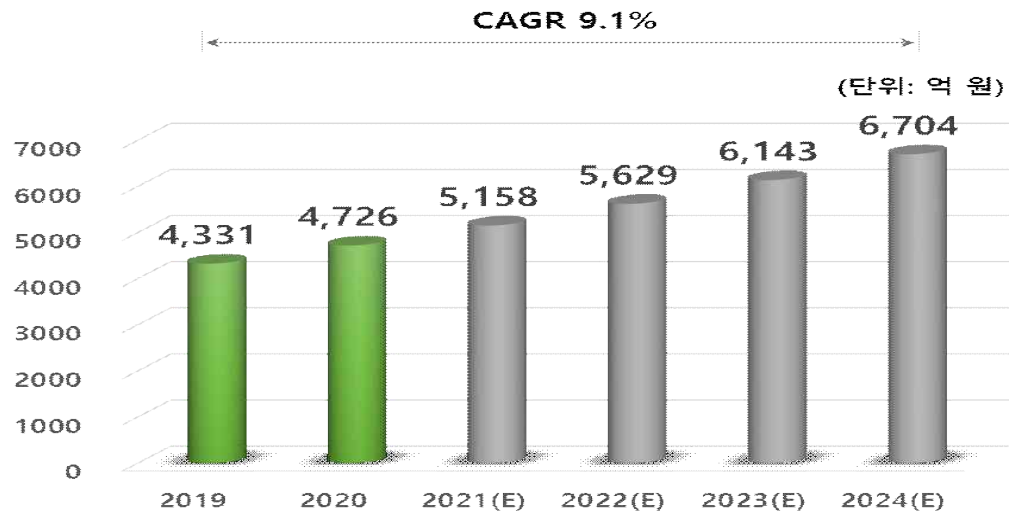
이는 고도화된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병원 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의료 서비스의 융합 강도가 높아지면서 IT 기반 의료기기 및 장비,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시스템을 통한 병원 간 의료정보 교환이 용이한 점과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필수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확산된 의료정보화가 이제는 정보 공동 활용과 관련된 서비스들까지 창출하고 있는 추세이다.

의료정보 시장은 서비스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해 관심이 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아울러,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급 확대로 개인건강기록(PHR) 및 유전자 검사 등을 활용한 확장된 개인 맞춤형 의료정보 플랫폼 사업의 중요성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어 시장은 더욱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조사기관인 TechNavio 보고서(2019)에 따르면, 세계 의료정보 시장은 2019년 228.7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8.0%의 성장률로 2024년에는 335.4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계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국내시장 비중을 적용

하여 추정된 국내 의료정보 시장은 2019년 4,331억 원에서 연평균 9.1%로 성장하여 2024년에는 6,704억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 국내 의료정보 시장 전망추이



*출처: TechNavio 보고서(2019), NICE디앤비 재구성

■ 경쟁사 분석

[유비케어] 유비케어는 1992년 설립된 국내 요양기관 EMR 전문기업으로 의료정보 플랫폼 사업, 개인 건강정보 관리 플랫폼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1997년 코스닥에 상장하였다. 유비케어는 전국 24,400여 개의 의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헬스케어 관련 의료기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요양기관 EMR 시장의 빠른 선점을 바탕으로 의료 서비스 관련 사업 포트폴리오를 실현 중이다. 2020년 기준, 유비케어의 매출액은 총 1,078억 원이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34억 원, 68억 원으로 기록되었다.

[이지케어텍] 이지케어텍은 국내외 중대형 병원에 의료정보 시스템을 공급하는 헬스케어 IT 기업으로 2001년 설립되어 2019년 코스닥에 상장하였다. 이지케어텍의 주력제품인 베스트케어(BESTCare)는 국내외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이며, 클라우드 기반의 프리미엄 EMR, 엣지앤넥스트(EDGE&NEXT)는 의원부터 종합병원까지 서비스가 가능한 제품이다. 이지케어텍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스마트솔루션, 인공지능 등 최신 ICT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769억 원의 매출액과 40억 원, 79억 원의 영업손실과 순손실을 기록하였다.

[라이프시멘틱스] 라이프시멘틱스는 디지털헬스 플랫폼, 디지털헬스 솔루션, 디지털 치료제 등의 개발과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2년 설립되어 2021년 코스닥 상장하였다. 라이프시멘틱스는 능동적 의료소비자의 등장과 디지털헬스를 통한 비대면 의료의 도래를 예상하고 이에 따른 제반 수요에 착안하여 개인건강기록 기반

디지털헬스 기술플랫폼인 '라이프레코드' 를 개발하였다. 라이프시맨틱스의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사업 범위를 내국인까지 넓힌 상태이며, 2020년 기준 27억 원의 매출액과 37억원, 93억원의 영업손실과 순손실을 기록하였다.

■ 동사의 SWOT 분석

[그림 7] SWOT 분석



■ 동사의 ESG 활동



환경(E) 부문에서 동사의 사업은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이 없어 환경 부문은 활발한 활동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주관하는 탈(脫)플라스틱 실천운동인 ‘고고챌린지’ 는 동참하고 있다. 고고챌린지는 2021년 1월부터 환경부가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으로 동사는 전직원에게 다회용컵을 지급해 종이컵 사용을 줄이고 있으며, 올바른 분리배출 등 환경 보호를 위한 대내외 친환경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사는 사회(S) 부문에서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SW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동사는 임직원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임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검진 지원제도, 금연수당 지급제도를 두고 있으며, 임직원이 안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대출제도, 각종 경조사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배치하고, 문턱을 없애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사는 기업의 이익과 성장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역시 수행하고 있다. 동사는 첨단기술을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동사의 대표이사 조현정 회장이 설립한 학술장학재단은 벤처인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 및 SW산업발전을 위한 학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슬로건 하에 비트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래밍 기법과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비트프로젝트 단행본을 매달 발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인 정보화교실 운영과 시스템 점검활동, 영세민아파트 거주자와 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교육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표 2] 동사 근로자의 근속연수 및 급여액

성별	직원 수(명)			평균근속연수(년)		1인당 연평균 급여액(백만원)	
	동사	기간제 근로자	합계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남	104	-	104	10.63	7.9	38	64
여	37	-	37	8.46	5.8	31	49
합계	141	-	141	10.06	7,4	36	60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2021.0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지배구조(G) 부문에서, 동사의 분기보고서(2021.09)에 의하면 동사의 이사회는 총 5인으로, 사외이사 2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2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감사 지원조직을 별도 구성하고 있다.

 동사는 주주환원을 위해 결산배당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평균배당수익률은 0.6%이다. 동사는 개인보호 정책과 정보보호 정책을 보유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공개하여 상장기업으로서의 기업공시제도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I. 재무분석

안정적 수요 기반으로 300억 원 대의 매출 규모 및 10%대의 수익성 유지

동사는 국내 의원, 병원 및 대형 약국 등 안정적 수요 기반을 바탕으로 최근 3개년 간 300억 원 대의 매출 외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 일시적 손실을 기록한 이후 최근 2개년 간 10%대의 수익성을 지속하고 있다.

■ EMR 관련 의료정보 시스템이 주요 사업

동사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주요 사업 부문은 의료정보사업(의료정보 시스템+디지털 헬스케어), 교육사업 및 임대사업으로 구분된다. 사업 분야별 매출 비중은 2020년 기준 의료정보사업 71.5%, 교육사업 24.1%, 임대매출 4.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주력사업인 의료정보사업은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EMR 솔루션 관련 의료정보사업과 원격진료 및 비대면 처방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로 구분되며, 총매출액 대비 각각 64.4%, 7.1%를 차지하고 있다. EMR 솔루션의 경우 4차 산업혁명 및 의료서비스 진화에 따라 클라우드 패키지 형태로 공급되고 있으며 상급종합 병원용(bitnixHIS), 중소병원용(CLEMR), 요양병원용(bitnix Cloud), 의원용(BIT PLUS) 등 병원 규모별로 제품군이 세분화 되어있다.

브라질, 캄보디아, 몽골, 아랍에미리트, 우크라이나 등 해외 기업 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매출이 발생하기도 하나 2020년 기준 해외 매출 비중 3.7%로 주로 내수 위주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20년 전년에 이어 370억 원대의 매출 규모 유지

최근 3개년 간 300억 원 대의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해외 부문의 매출이 전년 대비 59.3% 감소함에 따라 전체 매출액 역시 전년 대비 0.3% 감소하였지만, 연간 매출액 372.8억 원으로 전년에 이어 370억 원대의 외형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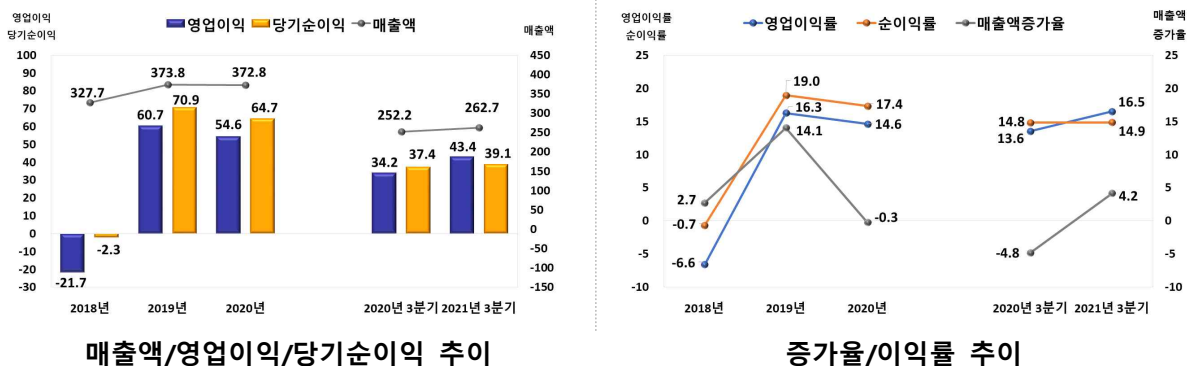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262.7억 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총매출액의 70.5% 수준이다.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의료정보사업 72.9%, 교육사업 22.6%, 임대사업 4.5%로 결산 시점에 이어 주력사업인 의료정보사업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교육사업과 임대사업이 전년도 동기 대비 각각 -13.3%, -1.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의료정보사업은 11.6% 증가하여, 의료정보사업이 지속적으로 동사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총매출액 대비 영업비 총액 비중이 80%대로, 10%대의 수익성 유지

최근 3개년 간 매출원가와 판매비를 합산한 영업비가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연간 80~85% 수준으로, 2018년 일부 프로젝트의 원가 상승 및 프로젝트 손실충당부채 설정으로 수익성 약화되며 일시적으로 적자를 기록한 이후 연 10%대의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4.6%를 기록한데 이어 잡이익, 이자 및 배당금 등의 금융수익, 지분법이익 등 영업외비용을 상회하는 영업외수익의 영향으로 매출액순이익률은 매출액영업이익률을 상회하는 17.4%를 기록하였다.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6.5%로 전년도 동분기 13.6% 대비 2.9% 증가하였고, 매출액순이익률은 14.9%로 전년도 동분기 14.8%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림 8]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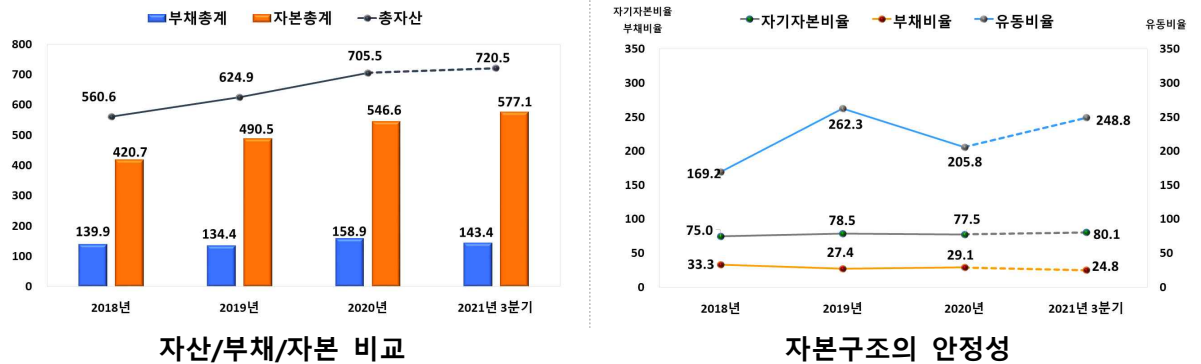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 낮은 부채부담, 풍부한 현금유동성을 바탕으로 양호한 재무안정성 유지

우수한 수익창출력을 바탕으로 누적한 이익잉여금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30% 내외의 부채비율 및 200% 대의 유동비율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0년 말 부채비율 29.1%, 유동비율 205.8% 등 전년도 말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이 총자산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차입금을 상회하고 있어 순차입부담이 낮은 수준이다.

2021년 9월 말 부채비율 24.8%, 유동비율 248.8% 등 2020년 말 대비 소폭 향상된 재무안정성을 나타냈고, 여전히 우수한 재무구조 지속하였다.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이 총자산의 20.4%를 차지하고 있고, 여전히 차입금 규모를 상회하고 있어 우수한 현금유동성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Peer Group 분석

동사의 동종업체로는 (주)유비케어, (주)이지케어텍 등이 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을 비교하면, 동사가 372.8억 원, (주)유비케어 1,078.2억 원, (주)이지케어텍 769.2억 원으로 (주)유비케어의 매출액이 가장 크다. 수익성을 비교해 보면, 동사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4.6%, (주)유비케어가 12.4%, (주)이지케어텍이 -5.16%로 수익성은 동사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3분기	2021년 3분기
매출액	327.7	373.8	372.8	252.2	262.7
매출액증가율(%)	2.7	14.1	-0.3	-4.8	4.2
영업이익	-21.7	60.7	54.6	34.2	43.4
영업이익률(%)	-6.6	16.3	14.6	13.6	16.5
순이익	-2.3	70.9	64.7	37.4	39.1
순이익률(%)	-0.7	19.0	17.4	14.8	14.9
부채총계	139.9	134.4	158.9	163.7	143.4
자본총계	420.7	490.5	546.6	518.4	577.1
총자산	560.6	624.9	705.5	682.1	720.5
유동비율(%)	169.2	262.3	205.8	224.8	248.8
부채비율(%)	33.3	27.4	29.1	31.6	24.8
자기자본비율(%)	75.0	78.5	77.5	76.0	80.1
영업현금흐름	-6.8	21.3	111.6	58.5	23.3
투자현금흐름	-21.3	-24.5	-42.0	-15.7	-15.6
재무현금흐름	-17.8	7.6	-2.9	4.1	-28.0
기말 현금	17.0	21.4	87.8	68.2	67.8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III.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원격진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전망은 긍정적

노령인구 증가 및 코로나 19에 대한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주요 사업인 클라우드 패키지 기반의 EMR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원격진료에 대한 요구 역시 커지고 있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전망과 동사의 EMR 제품 연계 가능성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복지 차원의 원격진료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정의하고 있는 바, 동사가 전개할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산업구조는 환자단의 스마트기기 애플리케이션과 의료기관의 원격 모니터링, 원격 진료 시스템, 이 세 가지 부분을 연동하는 EMR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사는 환자단에서 필요한 스마트기기를 제외한 모든 구성 요소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또한, 주요 사업군인 EMR 시장이 전자건강기록(Electro Health Record, EHR),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으로 확대 및 발전하고 있어서 동사의 EMR 시장 점유율이 지속된다면, 연계사업인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전망 역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 한국판 뉴딜사업의 참여 현황

2021년 12월 다수의 미디어 자료에 따르면, 동사는 전국 5,000여 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위한 화상통신 장비를 구축하였다. 이 사업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 중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한국보건의료원이 주관하여 동사가 수행한 사업이다.

화상통신 장비의 구축으로 환자의 모바일 기기와 의료기관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환자와 의료진 간 EMS 시스템을 통한 예약, 접수 및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동사는 지난 20여 년간 국내외 1,000여 개 기관에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구축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비대면 의료체계 확립에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실시한 건강관리기술 기업평판 우수기업 선정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2021년 12월, 건강관리기술 상장기업 11개 브랜드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브랜드 평판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조사는 2021년 11월 31일부터 약 한 달간 상장기업 브랜드 데이터 14,024,802개를 수집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평판을 분석한 것으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

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어 평판하였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었으며,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건강관리기술 상장기업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 지수, 시장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하여 브랜드 평판지수를 산출하였는데 건강관리기술 우수기업으로 비트컴퓨터를 비롯하여 제이시스템, 유비케어, 케어랩스 등이 선정되었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상상인증권	BUY	14,800	2021. 04.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진료의 제한을 과감히 풀어야 할 필요성: 최근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격진료를 활용하는 미국,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복지 차원의 원격의료 확대를 지속하고 있는 일본 등 ■ 동사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원격 진료 시스템 및 연동 시스템인 EMR 등 디지털 헬스케어 구현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 강점 ■ 현재 동사의 포커스는 클라우드 패키지 서비스 EMR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는 것과 2019년 자인컴 인수와 같은 M&A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것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10] 동사 1개년 주가 변동 현황



*출처: 네이버금융(2022년 01월 25일)